

오브젠(Obzen Inc.)은 AI 기반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솔루션을 제공하는 대한민국의 선도 기업이다. 2000년 설립된 이 회사는 본사를 서울에 두고 있으며, **\*\*CEO 김지훈(Jihoon Kim)\*\***이 경영을 이끌고 있다. 오브젠은 CDXP+ 및 Obzen Sales Cloud라는 대표적인 제품을 개발하여 국내 및 해외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네오소프트(NeoSoft Inc.)\*\***와 **\*\*데이터메이트(DataMate Inc.)\*\***와의 치열한 경쟁이 지속되고 있다. 네오소프트는 AI 기반 고객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머신러닝을 활용한 고객 행동 예측 모델을 보유하고 있다. 데이터메이트는 클라우드 기반 마케팅 자동화 솔루션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확장하고 있다.

오브젠은 AI 연구소 Obzen AI Lab을 운영하며, AI 금융 데이터 정제 및 추천 엔진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고객 맞춤형 CRM 솔루션의 성능을 더욱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이다. 또한, 오브젠은 개인화 추천을 위한 머신러닝 알고리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오브젠의 주요 투자자로는 **\*\*스타벤처캐피탈(Star Venture Capital)\*\***이 있으며, 2022년 10월 150억 원을 투자하여 10%의 지분을 확보했다. 2023년 오브젠의 재무제표에 따르면, 매출은 5,000억 원, 영업이익은 800억 원, 순이익은 550억 원을 기록하였다. 또한, 오브젠의 주식(티커 코드: OBZ123)은 32,000원에 거래되며, 시가총액은 1조 6,000억 원, **\*\*배당률은 2.1%\*\***를 기록했다.

네오소프트와 데이터메이트의 재무 정보도 공개되었으며, 네오소프트는 연매출 3,500억 원, 순이익 400억 원을 기록하며 시장에서 강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데이터메이트는 매출 2,800억 원, 순이익 300억 원을 기록하며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중이다. 두 기업 역시 각각 주식 시장에 상장되어 있으며, 네오소프트는 시가총액 1조 원, 데이터메이트는 8,000억 원 규모의 시장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